

북미 기록학의 동향과 전망

- 패러다임 변화를 중심으로 -

Archival Studies in North America: Current Developments and Trends

윤 은 하(Eunha Youn)*

목 차

- | | |
|--|------------------------|
| 1. 서 론 | 3. 기록학 패러다임의 전환 |
| 2. 역사학, 문헌정보학, 기록학의 동향: 원칙
과 의미의 변화(1970년부터 현재까지) | 3.1 아카이브가 존재하는 이유의 변화 |
| 2.1 역사학 | 3.2 아키비스트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
| 2.2 문헌정보학 | 3.3 기록관리 방식의 변화 |
| 2.3 기록학 | 3.4 기록학 원칙의 변화 |
| | 4. 결 론 |

<초 록>

최근 전자기록의 등장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은 기록학계에 기술적, 이론적 반향을 일으켰다. 이는 기록학 패러다임의 다원화와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확산으로 이어지며 서구 기록학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추세는 기록을 효율적 관리 대상으로, 기록관리의 기술적 문제를 강조하던 과거의 경향에서 벗어나, 기록과 기록관리의 의미를 사회적 산물로 이해할 것을 요구했다. 기록학 내부에서 행해진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록의 범주를 광범위하게 확장시키고 다원화된 새로운 기록 전통을 정립해 나가고자 했다. 현재의 변화는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기술적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닌 기록의 본질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데, 본고는 북미 기록학계가 추구하는 변화에 대해 문헌정보학과 역사학의 변화의 맥락 속에서 그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제어: 기록관리의 다원화, 기록학 원칙, 학제간 연구, 기록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ABSTRACT>

In this article, the author introduces the paradigm shift in archival studies that occurs in north America. Although the dominant paradigm in the archival studies-the positivism paradigm-greatly contributed to build modern archiv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during last decades, new ideas and technologies led the archival communities to re-identify their social roles and powers and to adopt new values of archives and archivist. This essay argues that this changes is essential to our future and we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changes from the broader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of archives studies, information studies, and history.

Keywords: archival paradigm shift, archival principles, interdisciplinary research, history, information studies

* UCLA 박사, 현 외대 정보기록학과 강사(eunhayoun@gmail.com)

■ 접수일: 2011년 11월 17일 ■ 최초심사일: 2011년 11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23일

1. 서론

북미 기록학의 모태라 할 수 있는 19세기 랑케주의 역사관은 20세기 들어와 그 이론적 토대를 완전히 잃었다. 실증주의적 사료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역사주의는 ‘사실은 스스로 말한다’는 유명한 테제를 남겼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역사학이 실제 역사와 그 기록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 일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자 객관적 역사에 대한 절대적 신념을 포기하였다. 이러한 역사 서술에서 절대적 객관성에 대한 부인은 곧 객관적 기록관리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는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기록과 기록관리를 추구하던 기록학의 위상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이에 더해 미셸 푸코의 권력 이론과 데리다의 텍스트주의는 아카이브의 역사를 지배계급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정치적 도구로, 기록을 생산자와 관리자의 주관 이 강하게 개입된 텍스트로 주장했다. 2000년 이후 기록학은 이러한 여러 인문학적 담론을 수용하며, 기록과 기록의 본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역사적 고찰과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기록과 기록관리가 본질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 행위라는 결론에 도달하며, 사회적 책임과 기록관리의 투명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기록학계의 이러한 포스트모던의 상대주의적 가치의 위협은 비단 역사학에서만 유래한 것은 아니었다. 1970년 이후 북미 기록학은 문헌정보학과 지적 동향과 기술적 발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1990년 이후 다양한 학제 간 연구를 바탕으로 정보 기술의 확장을 추구하는 문헌정보학과 연구 경향은 이러한 포스트모던적 학문

적 새로운 경향을 점차로 수렴하는 듯 보였다. 1960년 이래 문헌정보학과는 새로운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꾸준히 관심을 보였다. 좀 더 다원화된 기술사회에 적합한 학문 분야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 인식의 지평을 넓혀왔다. 그리하여 2008년에는 iConference를 조직하여 ‘정보’와 ‘사회’, 그리고 ‘기술’의 문제에 본격적인 화두를 던지기도 하였다. 2000년대 문헌정보학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 연구에 흥미를 보였는데, 그들의 정보사용 패턴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바탕으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는 자연스럽게 커뮤니티와 그들의 문화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고, 인문학의 포스트모던적 논의와 함께 새로운 기록학 담론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인접학문과의 연관성 속에서 현재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라 불리는 기록학의 새로운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역사학과 문헌정보학, 기록학의 전반적인 동향을 소개하여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타 분야의 학문적 연관 속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며, 둘째, 이를 바탕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현 기록학 내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역사학, 문헌정보학, 기록학의 동향: 원칙과 의미의 변화 (1970년부터 현재까지)

현 패러다임 전환은 사실상, 기록학계의 오랜 논의의 결과로 탄생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기록

학계에 주된 영향력을 끼치는 두 분과, 즉 역사학과 문헌정보학과의 학문적 동향과 무관하지 않다. 북미 기록학의 모태가 되었던 역사학은 북미에서 기록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시켰고, 이후 문헌정보학과는 기록관리를 구체적 방법론과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보관리의 한 분과로 재탄생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두 학문의 지적 토대는 기록학의 양분을 제공하며 발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고는 패러다임 변화라는 현재 기록학의 변화 역시 이들 학문의 현 연구 경향과 어떻게 연관 될 수 있는지를 짚어보고, 좀 더 포괄적인 맥락에서 이를 이해하고자 한다.

2.1 역사학

북미 기록학은 1970년대 이후 문헌정보학과로 그 터를 옮겼음에도, 역사학계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역사학자들은 아카이브의 중요한 이용자 집단이었고, 그들의 연구는 주립 아카이브의 수집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많은 기록학 학자들이 역사학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들의 상당 부분 역시 역사, 문학, 미학과 철학 등의 인문학 분야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학은 인문학적 연구 동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따라서 역사학계의 새로운 연구 경향은 기록학계의 패러다임 변화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새로운 사회적 책임과 수집 정책을 논의하는 데 그 단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역사학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행은 1970년대 역사 연구에서 거대담론을 지양하고 ‘작은 것’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일어나기 시

작했다. 동시에 역사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전면적으로 거부되고 역사의 문학적성과 주관성을 역설하는 역사가들이 등장하며 포스트모더니즘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문화적 전환이라고도 불리는 이 새로운 경향은 과거 단순히 역사 연구의 일부로 여겨졌던 문화사를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역사 연구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역사상 평범한 갑남을녀, 어린이, 광인, 병자들, 죽음, 위기와 말하기에 이르기까지 과거 인간의 모든 영역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과거 객관적 지표로 여겨졌던 국가, 경제 행위, 사회 계층, 심지어는 남녀관계도 모두 문화적 생성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근대 여성의 인권, 도시 빈민과 농부의 삶, 종교적 이단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역사가들은 아카이브에 일반 대중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기록과 그들의 삶을 연구할 방법론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문맹률이 높았던 농촌의 삶은 문자 기록을 남기는 데 익숙지 않았고, 아카이브는 그들 민간 기록을 보존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근대 유럽 인구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에 대한 기록은 파편적이고 소외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농민 스스로 생산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그들 삶의 증거는 근대 정부의 통계나 재판 기록 등에서 짧고 간략한 몇 줄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역사학을 옹호하는 역사가들은, 직접적이고 완전한 기록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역사적 기록을 이용하여 그것의 숨겨진 이면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민중의 삶을 이해하려 하였다. Ginsburg는 중세 이탈리아 농부들의 세계관을 분석하기 위해, 종교적 이단 재판 기록을 읽으며, 민중 사상을 역사

적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했고(Ginsburg 1980), Darnton은 근대 프랑스 인쇄공들의 고양이 대 학살이라는 기이한 소동을 통해, 그 시대를 노동계급이 가지고 있던 반부르주아지적 감정을 드러내려 하였다(Darnton 1984). 즉 당시의 빈약한 공공기록 속에서 나타나 있지 않는, 가리워지고 숨겨진 농민의 목소리를 역사가의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미시사와 심성사 등의 문화사는 이러한 기록의 새로운 읽기 방법을 통해 만들어졌다. 즉, 직접적으로 농민이나 대중들이 생산해 낸 기록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중세의 텍스트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새로운 읽기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가운데 역사학자들은 역사서술의 주관성과 그 한계에 대해 분명히 깨달았다. 그리고 아카이브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역사학은 기록의 부재에 대한 비판과 객관적 기록의 존재가능성을 의문시함으로 기록학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이러한 새로운 역사학의 등장과 아카이브에 대한 비판은 기록학 내에 기록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켰다. 역사학의 학문적 경향과 기록관리의 목적과 아카이브의 존재 이유가 얼마나 현재 '부합하고 있는가' 혹은 '부합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자문하도록 했다. 동시에 이러한 논의는 기록의 법적, 행정적 증거 이외에 가지는 문화적 가치에 대해 재고하도록 했으며 아카이브의 주요 이용자로서 역사학자들과의 학문적, 이론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같은 역사학의 일련의 변화는 기록학 내에서 스스로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 규명하고 새로운 이론적 토대를 세우는데 많은 영향력을 주었다. 동시에 역사학과 마찬가지로, 기록학

역시 스스로가 사회적 산물이며 그가 속한 시대의 역사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주관적 한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2.2 문헌정보학

Furner는 2010년 ARIST 논문에서 문헌정보학과를 '정보에 관한, 그리고 그 정보를 둘러싼 사람들의 행위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언급했다. 1980년 이후 Buckland, Capurro, Hjørland, Cornelius, Fallis와 같은 학자들은 정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을 통해 문헌 정보학과와 본질과 학문적 흐름에 대해 통찰력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들은 정보 검색과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보의 정의와 의미를 모두 접근함으로써(정보가 데이터인가 텍스트인가) 문헌정보학 분야가 정보와 그를 둘러싼 사회와 이용자를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했다(Furner 2010).

문헌정보학과는 1960년대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정보 분류와 검색 시스템 개발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고, 1968년 MARC(Machine Readable Catalog)와 같은 카탈로그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성과를 보였다. 당시를 회상하며, Day는 1960년대 실증주의적 사고의 영향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마치 신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정확하고 명확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그 당시 정보는 눈에 보이고 관찰 가능한 분명한 객체로 여겨졌고, 정보의 수신자와 발신자간에는 분명하고 일정한 일대일의 관계가 있다고 가정되었다(Capurro 1992; Day 2000, 2001). 그리하여, 정보 검색 시스템은 마치 자연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듯,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Day 2000, 2001). 그러

나 이후 1970년대 이르러 연구는 곧 단순히 문헌정보학과는 검색 시스템이나 정보 분류에 대해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학문 이상의 분야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즉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지 혹은 어떻게 시스템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끌기 시작하며 점차로 이용자 연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도서관 서비스는 사회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그리고 대중을 위해 어떻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고, 1970년대 이후 정보 검색 연구는 Best matching search를 위해 이용자의 반응과 피드백, 인지도와 지식 체계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Cronin 2008; Harman and Voorhees 2006). 그리하여 사회적이거나 가치의 문제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파악되던 정보 검색은 점차 사회적, 인식론적 관점을 중시하게 되었고, 시스템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컨텍스트와 검색 기능간 상호 관련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1990년대는, 도서관과 그것을 둘러싼 문화적 컨텍스트 간의 관련성을 고려한 정보 기술의 사용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며, 동시에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사회 문화적 관점이 정보와 지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며, 이용자들은 집단 별로, 그들의 정보 이용 방식과 패턴에 따라 종종 구분되기 시작했다. 1990년 이후 문헌정보학과에 일어난 다양한 학제 간 연구는 이러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경영학, 사회학, 컴퓨터 공학, 지리학과 문학 등 다양한 문과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며, 새로운 주제와 연구 방법론에 더욱 개방적으로 반응했다. 그리하여, 특정 이용자들이 왜

그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하는지, 그들의 문화적 특성이 정보활동과 어떻게 연계되어있는지 등, 정보 교환과 의사소통 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방면으로 증가했다. Van House는 2004년 ARIST에 출판한 논문을 통해 정보 기술의 사회적, 문화적 동향을 소개하였다.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교환하고 유통시키는 방법은 곧 그것이 속한 사회,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하는 방식이 문화적 현상으로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도서관과 같은 정보 제공 기관에 대한 연구와 함께 헤어살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획득하고 공유하는지와 같은 다양한 정보 교환 방식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한다는 사실과, 이러한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점차 문헌 정보학은 정보의 교환을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정보를 단순히 주고받는 외부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인 커뮤니티를 연구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정보가 이용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다원화된 사회에 적합한 정보관리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문헌정보학과의 학문적 경향은 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점을 강화시켰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록학에서 커뮤니티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와 기록관리 원칙의 다원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Cappuro 1992; Cronin 2008; Davenport

2008).

1970년대 기록의 증가로 인해 기록학이 문헌 정보학과와 정보 관리적 측면에서 공통된 요구를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조우한 것 같이, 2000년대 이후는 이러한 정보관리에 있어 사회적 인식과 역할에 양자의 이해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정보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정보의 의미와 역할을 재 규명하는 노력은 기록학에서 기록의 의미와 문화적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 진다. 예를 들어, Srinivasan은 정보학의 관점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정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인류학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했다. 그의 이러한 연구 방법론과 성과는 공동체의 기억과 기록을 보존하려는 현재의 기록학 담론과 자연스럽게 연관되기도 하였다(Srinivasan and Shilton 2006). 즉, 어떻게 정보전문가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다양한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현 기록학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으로 현 문헌정보학과 역사학의 동향을 간략하게나 소개했다. 이러한 두 분과의 학문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기록학내의 동향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유용하다. 이를 통해 기록학 내의 사회적 움직임은 단순히 기록학 내의 변화라기보다는 역사학과 문헌 정보학 등의 동향과 연관되며, 인문학 전반에 걸친 학문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동향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접 학문들의 영향 속에서 기록학 패러다임의 변화란 기록의 생산과 유통, 관리와 보존 등 기록관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사회 문화적 관점을 적용하고, 기록관리를 문화적 다원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두 분과의 연구 변화가 기록학 동향에 끼친 구체적인 영향력과 연관성은 좀더 폭넓은 질적, 양적 연구 성과에 의해 차후에 보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본고는 각각의 경향 분석을 통해 상호 관련성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3 기록학

1990년대 이후 전자기록의 확산으로 새로운 기록 환경과 전자기록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북미 기록학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자기록의 기록적 특징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종종 기록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즉 기록이란 무엇인가, 또한 증거란 무엇인가와 같은 본질적이고 개념적인 논의들은 전자기록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촉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기록학은 공공기록, 특히 종이 기록 중심의 기록관리 원칙과 개념을 고수했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기존의 이론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러한 분석은, 무엇보다 아카이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던 기록학계의 다른 한 축의 논의와 쉽게 일치했다.

미국의 기록학은 1940년 Posner가 아메리칸 대학의 역사학과에 개설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이후 1970년대 역사학으로부터 문헌정보학과로 점차 그 터를 옮기고, 정보관리의 관점에서 학문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했다. 1978년, 기록학 교육은 9개 문헌정보학과에서 기록 행정에 대한 몇 개의 과목을 가르치는 것에 불과했지만, 몇 해 뒤인 1980년에는 전미 주 주립대학으로 확대되었다. 전미 32개의 문헌정보학과에서 급

속히 기록학을 받아들였고 곧, 47개의 수업으로 확대되었다(Bastian, Yakel 2006). Bastian과 Yakel은 1970년대와 80년대 기록학 연구 동향이 주로 기록관리의 기술과 관리에 대한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보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기록 생산량의 엄청난 증가에 따라 당시 시장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록관리 전문 요원의 배출이 시급한 문제였고 이는 곧 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연구 경향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은, 각 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지침과 매뉴얼의 출판이 두드러졌다. 평가와 선별, 정리와 기술, 보존과 서비스 등 기록관리의 각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텍스트가 SAA에서 지속적으로 출판되었고, 체계적 기록관리로 기관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문적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복지노선을 표방하는 연방정부의 등장으로 기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각주 주립 아카이브의 성장은 불가피하게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Swift 1982). 동시에 새로운 IT 산업의 성장과 컴퓨터의 등장 역시 기록을 하나의 데이터와 정보 자원(Information Resource) 차원으로 이해하도록 했다(Dollar 1993).

1980년대 기록학계의 관심 단연 도큐멘테이션이라 할 수 있다. Hinding은 논문을 통해 당시 기록관리가 너무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정부기록관리, 무엇보다 연방정부 기록관리에 쏟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기록 보존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Hinding 1993). 1980년대 초, Ham과 Samuel 역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Minnestora, Wisconsin, Michigan, New York의 주립 아카이브들도 적극적으로 이에 반응했다. 이러한 일련의 시범적 프로젝트 - 도큐멘테이션 전략 - 와 새로운 방법론의 등장, 기록관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캐나다의 CAA와 미국의 SAA를 학술적 논의를 뜨겁게 달구었고, 이는 곧 다양한 학술지를 통해 많은 연구들을 출판 것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그 현실적 실효성에 많은 이의가 제기되었다. 대개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특정 주제나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중요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록들을 선별하고 수집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를 위한 방법론적 한계, 선별 기준의 주관성(거시적, 미시적 차원 모두에서)의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더불어 전문 위원들 간의 의견의 불일치, 기관의 이해관계의 차이, 새로운 기록을 보존할 인력과 인프라의 부족, 그리고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펀드의 부재 등으로 현실적인 문제들로 말미암아 북미 기록학계는 1990년 초반 이후 더 이상 도큐멘테이션에 대해 논의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통해 기록학계는 기록관리의 사회적 의무의 재정립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수집 기록 종류의 기록을 다양화시킴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1990년대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전자기록과 기술 표준화 같은 기술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1990년 기록학계가 다양한 인접학문들의 학문적 성과들을 수용하고, 기록학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더욱 깊

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즉 사회학과 철학, 역사학 등지에서 활발히 일어났던 포스트 모던적 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를 토대로 기억의 담지물로써 기록과 권력으로써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기록이란 인간의 기억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구조물로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는 사실이 재 부각되면서, 아카이브는 특정 형태의 사회 일부의 기록만을 보존해왔다는 주장이 전면에 등장했다. 그리하여 아카이브가 기록보존을 통해 특정 계급의 특정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 이용되어 왔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문제는 그 아카이브가 스스로를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특정 계급의 기록을 마치 그 사회 전체의 기록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Brothman 1991; Blouin Jr. 2007; Cook 1984, 1987; Harris 1997; McKimmes and Upward 1993). 즉, 기록관리에서 소외된 기록은 그 기록의 주체의 기억을 소외시킴으로써 사회적 기억의 대상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배제되도록 만들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아카이브와 기록관리는 지배계급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정치적 도구로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다(Ketelaar 1999). 이러한 논의는 사실상 그 급진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1990년대에는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감과 국가 기관으로서 아카이브의 위상을 위협하는 논의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푸코와 데리다 등의 철학적 이론가들의 사상은 지속적으로 기록학계에 들어왔고, 역사학에서 언급되는 문화적 전환과, 문헌정보학과에서 논의되던 정보 서비스의 사회적 관점

은 기록학 내에 권력과 사회, 문화와 기억이라는 논제를 점점 더 부각시켰다(Derrida 1996; Harris 2011).

또한 무엇보다 1990년대는 국제표준의 제정과 각국의 기록기술 표준화, 전자기록의 등장인 기록학계를 휩쓸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캐나다의 Duff, 영국의 Cook, 미국의 Hensen은 지속적으로 RAD와 MAD, APPM에 관한 논문을 출판했고, 자국의 기록 기술과 정리의 현황과 특징을 다룬 연구들을 소개했다(Cook 1992; Duff and Haworth 1990-1991, 1993; Henseon 1997).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90년대 ISAD(G)가 제정되며 출처주의와 원질서주의, 집합기록관리의 원칙 등은 빠르게 표준을 통해 전 세계로 퍼졌다. 또한 전자기록 역시 여러 대학과 주립 아카이브에서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었다 특히, University of Pittsburgh와 캐나다의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는 대규모 전자기록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전자기록의 특징과 기능, 메타데이터의 역할과 보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모았다.

2000년대의 북미 기록학계의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2000년대에는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축적되었던 이론적, 기술적 논의들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발전하였고, 학제간 연구의 영향으로 기록관리에 대한 논쟁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주로 디지털 기술의 급변에 따른 전자기록의 문제에 집중하던 논의는 점차 2000년대 전반에 이르러 전자기록의 증거적 가치에 대한 논의로 발전한다. 즉, 전자기록의 기록학적관점, 전자 기록의 법적, 행정적 증거적 가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기록의 증거적 가치에 대한 강조는 쉽게 기록의 본질과 특징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고, 진본성과 신뢰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대개의 프로젝트들은 문화적, 역사적 증거로써 전자 기록이 가치는 가치를 어떻게 규정할 것 인가의 문제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개의 연구는 법적, 행정적 가치들에 주목하고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InterPARES 프로젝트는 진본성과 신뢰성, 정확성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개념적 요건을 밝히는데 기여했지만, Diplomatics과 Lifecycle model과 같은 종이 기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론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는데 그 한계를 드러냈다. 즉 Gilliland에 따르면 Diplomatics 이론은 종이 기록의 물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기록의 개별적 특성에 집중하고 있었었는데 반해, 전자기록은 좀 더 기록의 생산과 유통, 보존 등 기록관리 과정과 컨텍스트를 보존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들을 근본적으로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Gilliland 2011).

2000년대 전자기록 연구는 이러한 기록성(recordness), 혹은 기록의 증거성에 대한 강조는 기존의 기록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기록의 형태나 구성, 기록의 외적이고 물리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규정되었다는 사실을 밝혔고, 전혀 다른 물리적 특성을 가진 전자기록을 이러한 정의로 이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동시에 2005년 이후 기록에 대한 기존의 정의가 너무 협소하다는 비판은 따라서 기술적인 시각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끊

임없이 지적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2005년 이후 Gilliland, Yeo, Brothman, Trace, White 등의 학자들은 기록의 사회적 관점에서 기록의 본질에 대한 검증과 재정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Yeo는 기존의 정의가 기록의 본질에 대한 검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기록관리 실무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Yeo 2007, 2008). 그리고 Gilliland는 '아카이브(archives)'와 '아카이빙(archiving)'의 개념적 구별을 통해 기억의 담지물으로써 문화적 가치를 가진 기록과, 과학 데이터나 정보 시스템에서 정보적 가치를 가진 기록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Gilliland 2011).

2010년을 지나며, 기록관리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이론적 논의는 기록관리의 거대 담론을 거부하고 기록관리의 미시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포스트모던적 논의는 2010년 기록과 기록관리를 이해하는 주요 담론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이후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아카이브 수집 정책의 불균형만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았고 기존 방법론의 한계와 새로운 대안에 대한 논의로 발전되었다. 기록 생산과 기록관리 전 과정에 걸쳐 존재하는 방법론적 편향성과 주관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어떻게 기존의 원칙과 가치들이 체계적으로 대중의 기록을 배제시켰는지, 이것이 어떻게 다양한 기록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 연구가 쏟아졌다. 예를 들어, 2009년 White는 멕시코의 흑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멕시코의 공식 역사 속에서 배제되는 과정을 분석했는데, 그에 따르면, 1570년 이후 멕시코는 전 세계 노

예시장의 2위를 차지할 만큼 흑인 노예 수입이 많았고 그 결과 당시 멕시코시티 인구의 55%이상의 흑인 인구였던 인종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스페인 지배 계층과 메조키조(스페인 백인과 원주민사이의 혼혈인종)는 멕시코 사회의 정통성을 가진 집단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타자로서 흑인 인구의 역사와 기록을 철저히 무시했다. 그들은 흑인의 기록을 보존하지 않았고, 그들의 기억과 문화를 그 공동체 내에 고립시켰다. 흑인의 문화는 끊임없이 주변화, 파편화되었다. 그 결과 멕시코의 공식 기록에서 흑인의 역사는 언급되지 않았고 멕시코 사회에서 그들의 정체성은 부정적이고 드러나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 화이트는 이러한 결론에 대해, 흑인들의 기억이 주로 구술과 구전, 의례와 춤을 통해 보존되었기 때문에 1) 그들 기록은 대개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에서 배제되었고, 2) 설혹 수집되었다 하더라도, 대개는 백인들에 의해 작성된 공공기록에서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거나, 3) 흑은 기록관리 방식의 정렬과 기술 방식이 그들 기록의 본질이 완전히 왜곡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기존 기록의 정의와 기록관리 방식이 그것과 모순되는 사회 소외집단의 기록을 끊임없이 소외시킴으로써 그들의 기억뿐 아니라 정체성마저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White 2009). 따라서 기록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이해는 현재 중앙 집권적으로 체계에서 거시적으로 관리되는 기록관리 제도와, 이를 통해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던 기록관리 방법론들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등장과 기

록관리 패러다임의 다원화는 하나의 궤를 이루며 빠르게 성장했다. 즉 사회적 기억의 완전한 보존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커뮤니티 아카이브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록관리 방법론 또한 한 사회의 기록문화에서 생성된 기록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다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관리 방법론의 다원화에 대한 논의와 커뮤니티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후반의 북미 기록학계를 휩쓸었다. 예를 들어, 2005년 *Pluralizing the Archival Paradigm through Education*, (2005-2007)은 미국의 UCLA와 호주의 Monash University, 그리고 중국의 Lenin University의 공동 프로젝트로, 태평양 지역의 기록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서구중심의 기록관리론을 다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The Trust and Technology Project: Building an Archival System for Indigenous Oral Memory* Project(T&T Project)는 호주 정부와 원주민 그룹, Monash University의 협동 프로젝트로 호주 '잃어버린 세대'의 기록을 되찾아주는 과정에서 드러난 현 기록관리 방법상의 한계를 지적했다. *The Community Archives and Identities Project*는 2008-2009년 동안 영국의 런던대학이 the UK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AHRC)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20개월 동안 수행한 프로젝트로, 영국 내 존재하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발견하고 그들의 문화와 기록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록관리와 기록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무엇보다 주목할 움직임은 미국의 *Archival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s(AERI)* 프로젝트이다. *The Pluralizing the Archival Curriculum Group*

(PACG)은 2009년 미국 연방 정부의 후원으로 2009년 이래 매년 AERI 학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UCLA(Gilliland), University of Michigan(Yakel), University of Maryland(Ambacher), University of Texas, Austin(Galloway), Simmons College(Bastia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Trace), University of Pittsburgh(Cox),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Tibbo) 등 미 8개 주립/사립대학의 기록학 프로그램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으며, 2011년 현재, 전 세계 10개국, 북미 15개 주립대로부터 참가한 100여명의 연구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패러다임 다원화와 관련된 기록학계의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기록학계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록의 기술적 변화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기록학계의 전반적 발전과정을 아우른다. 종이 기록관리 원칙의 차별성과 한계에서 기록의 본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테크놀로지의 영향력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의 특징은 단순히 전자기록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모색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기술적 변화가 기록에 끼치는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1960년 이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기록문화나 역사가 갖는 개별적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다시 말해, 현 변화의 본질은 다양한 기록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아카이브의 역할과 아키비스트의 임무 그리고 기록관리 방식의 원리에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기록관리 전반

에 대한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패러다임의 다원화 운동은 우리 사회의 타자란 누구인가와 연관되며 기록의 생산과 관리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온 계층을 발견하고 그들 기억과 기록을 보존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다원화와 함께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확산은 기록관리의 사회적 함의를 강조하고 새로운 기록 전통을 세우려는 오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기록학 패러다임의 전환

기록학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그 의미와 방향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는데, 2010년 Eastwood와 McNeil은 그들이 편집하여 출판한 책,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는 상당히 유용한다. 이는 현재 기록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변화를 자세히 그리고 상당히 설득력 있게 기술하고 있다. 미국의 Hedstrom을 비롯한 8명의 기록학 연구자들이 함께 집필한 이 책은 기록학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던 서구 이론들, 출처주의와 원질서주의, 선별과 정리기술, 보존 등과 같은 기록관리의 기본 과정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현 북미 기록학계의 변화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아키비스트 역할의 변화, 아카이브의 존재이유의 변화, 기록관리 방식의 변화, 기록관리 이론의 변화, 그리고 좀 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기록관리 원칙으로부터 다원화되고 개별적인 원칙으로의 전환 등이 그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다섯 가지 분류가 현 변화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방식이라는데 동의하며, 이

분류를 따라 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의 특징은, 기록과 기록관리의 목적과 의미를 기록 정보의 체계적 관리라는 기록관리의 실무적 가치를 넘어서 기록학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적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기록학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즉 얼마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기록을 관리할 것인가의 질문에 앞서, 기록관리 작업들이 무엇을 위한, 혹은 누구를 위한 작업인가에 대한 물음을 먼저 던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3.1 아카이브가 존재하는 이유의 변화: 아카이브란 왜 존재하는가

이러한 변화는 급격하고 혁신적이라기보다는 1980년대 이래 행해진 새로운 기록관리 전통을 세우려는 오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Booms, Ham, Cox, 그리고 Cook 등은 기록관리의 불균형과 기록의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현재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Bastian 2003; Blouin 1999; Brothman 2001; Craig 2001; Cook 2002; Eastwood 2010; Harris 1997, 2002, 2007; Nesthmith, Ketalaar 1997, 2000, 2002).

사실상 2000년 이후 사회적 책임의 강조는 단순히 특정 기관 내의 설명 책임성이나 정체성을 지키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아카이브의 책임을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기록의 생산과 관리, 보존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 모두를 포함하는 대단히 적극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Iacovino와 같은 연구자들은, 이미 논의 초점은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광범위하게 확대된 아카이브의 사회적 의무를 얼마나 수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있다고 주장했다(Iacovino 2010). 즉 사회적 책임의 범주를 정하는 것이 다음 세대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Hedstrom 역시 그녀의 논문에서 이러한 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단순한 인문학적 수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들과, 역사상 지속적으로 소외되었던 커뮤니티를 찾아내고 그들의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Hedstrom 2010).

3.2 아키비스트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아키비스트란 무엇인가

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는 자연스럽게 아키비스트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재조명의 작업으로 이어졌다. 아카이브가 사회적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장소로 인식되면서, 아키비스트는 기억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가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과거 젠킨슨주의자들이 기록관리자를 수동적이고 중립적인 기록의 보관자의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현재의 이론가들은 아키비스트를 좀 더 적극적인 기록 담당자, 사회의 기억과 정체성을 지키고 만들며, 더 나아가 급진적으로는 기록과 관련한 사회 운동가의 역할로 이해하기도 한다. 현재는 사회적 임무를 다하고 좀 더 완전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아키비스트가 기록의 생산부터 보존에 이

르기까지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사실상 전자기록 시대에는 불가피한 일로 기록관리는 이미 기록 생산 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제 아키비스트는 기록 선별과 정리 과정에 자신의 주관적 가치를 투영하는 일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누구의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에 대한 적극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캐나다의 네스미스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아키비스트의 임무는 기록을 선별하고 보존할 뿐 아니라, 기록이 생산된 컨텍스트를 재구성해냄으로 기록의 의미를 규정하는 적극적인 컨텍스트 구성자로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정의했다(Nesthsmith 2002). 즉, 아키비스트는 선별 뿐 아니라 정리와 기술을 통해 후대의 이용자에게 기록의 가치를 구체화시킨다는 것이다.

3.3 기록관리 방식의 변화: 어떻게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기록관리 방식을 개발할 것인가

오랫동안 선별과 정리, 기술과 보존으로 대표되는 기록관리는 아키비스트의 고유한 영역이자 권리였다. 특히 수집 대상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선별 기준을 세우는 것은 기록학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법론의 핵심은 아키비스트 단독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 기록관리 임무를 수행 할 것을 강조한다. 기관의 행정 기록이 아닌, 사회 공동체의 다양한 기록을 보존하고자 하는 아키비스트의

노력은 아키비스트의 단독으로는 수행되기 어렵다. 현 논의는 기록 생산자와 그 공동체의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선별과 정리, 보존의 과정에 아키비스트와 기록 공동체간의 원활한 협력을 허용함으로써 밑으로부터의 기록관리를 실천하고자 한다. 새로운 방식은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지는 중앙집권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의 기록관리 방식을 탈피하고 좀 더 '밑으로부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체 스스로의 기록관리를 추구함에 따라, 더 많은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한다. 이러한 논의는 전자기록관리의 논의와도 궤를 같이 하는데, 새로운 디지털 시대 역시 아키비스트가 기록 생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법률가, 컴퓨터공학자 등과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온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기록관리에 다양한 인적 자원의 참여가 불가피하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기록관리의 원칙이 하나의 단선적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4 기록학 원칙의 변화: 보편적인 거대 담론으로부터 개별적, 다원화된 방식으로 변화

현재 기록과 기록관리의 변화는 하나의 문화 내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된 개별적 기록 전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러한 상이한 기록 전통을 지킬 수 있는 기록관리는 본질적으로 다원적이고 독립적이다. 과거 출처주의와 원질서 주의 등 몇몇의 기록관리 거대 담론과 메타 이론들이 다양한 기록과 문화를 모두 설명하고 기록관리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적으로 부정한다. 즉,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은 그들만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나름의 독특한 인식론적 틀에 기반하여 기록을 생산하고 발전시켜왔다. 중앙집권적이고 일괄적인 행정 방식으로 이러한 개별적 기록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각 사회 집단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이 본질적 개념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재탄생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록관리 방식을 통해 그 기록이 가진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그 사회와 문화 내에서 발생시킨 기록관리 방식을 존중해야 하며, 이는 기록관리 원칙을 다원화시킴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4. 결 론

그러나 기록학에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문화적 상대주의의 가치를 지향과는 별도로, 2011년 현시대를 지배하는 디지털 기술과 글로벌리즘은 하나의 통합되고 표준화된 기술에 대한 수요를 끊임없이 드러낸다. 이러한 논쟁은 사실상, 디지털 시대의 기술이 가지는 효율성을 언뜻 제한하는 듯 보인다. 대량 생산된 현대 관료제의 기록이나 엄청난 양의 연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양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의 보급과 전자기술의 발전은 서구중심의 기록 패러다임과 기술을 빠른 속도로 보급시켰고, 국제 표준과 국제 학회들을 통해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기술 보급을 통한 서구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일방적 확산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서구의 비서구에 대한 지배가 과거 정치 이데올로기나 경제적 이해관계처럼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기록관리의 기술과 디지털 테크놀로지 등 과학을 통한 점진적이고 암묵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Gilliland와 McKemmish는 대부분의 대규모 프로젝트나 연구 사업들은 서구의 지배층에 속하는 주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기록관리의 원칙 역시 그들의 기록이나 기록문화에 기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McKemmish and Gilliland 2005). 그들과 이질적 특징을 가지는 타문화권의 기록적 특성은 자연스럽게 무시되는데, 테크놀로지나 기록관리 기술의 무비판적 수용은 이러한 기록관리 방식 내에 존재하는 권력의 불균형을 고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관리 방법과 원칙의 다원화는 결국, 정부나 기업 등 주류에 속하는 아카이브와 역사적으로 소외 받았던 기록 뿐 아니라 서구 주류 담론과 비서구로 분류되는 여타 지역들 간에 존재하는 기록관리의 권력의 균형을 회복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기록문화의 원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관리의 다원화 문제는 서구 기록관리의 일방적인 확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록학 원칙의 다원화 운동은 단순히 한 국가내 주류와 비주류의 불균형성을 지적할 뿐 아니라 동시에 서구와 비서구의 권력관계를 고찰하는 것으로 우리도 이러한 변화의 방향에 대해, 그리고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 두 가지 역설적인 가치(다원화와 표준화라는)를 기록관리가 어떻게 수용하며 발전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주요 논제가 될 것이라 예측한다. 동시에, 기록관리의 사회적 책임이 학문적 수사

로 그치지 않기 위해, 동시에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수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기록학계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결론을 맺는다.

참 고 문 헌

- Abraham, Terry. 1991. "Collection policy or documentation strategy: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Archivist*, 54: 44-52.
- Alexander, Philip N. and Helen W. Samuels. 1987. "The Roots of 128: A hypothetical documentation strategy." *American Archivist*, 50: 518-531.
- Bastian, Jeannette and Elizabeth Yakel. 2006. "Towards the development of an archival core curriculum: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rchival Science*, 6: 133-150.
- Bearman, David and Wendy Duff. 1996. "Grounding archival description i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evidence." *Archivaria*, 42: 28-45.
- Blouin Jr., Francis, and Willilan Rosenberg eds. 2007. *Archives, documentation and institutions of social memory: Eassay from the sawyer semina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ur
- Brothman, Brien. 1991. "Orders of value: Probing the theoretical terms of archival practice." *Archivaria*, 32: 78-100.
- _____. 2001. "The past that archives keep: Memory, history and the preservation of archival records." *Archivaria*, 51: 64-97.
- Capurro, R. 1992. What is information science for? A philosophical reflection, in P. Vakkari and B. Cronin, ed.: *Concep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Historical, empiric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Taylor Graham: London.
- Cook, Terry. 1984. "From information to knowledge: An intellectual paradigm for archives." *Archivaria*, 19: 28-49.
- _____. 1987.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s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1: 3-24.
- _____. 1992. "Documentation strategy." *Archivaria*, 34: 181-191.
- _____. 1992. Mind of matter: Towards a new theory of archival appraisal, in B.L. Craig, ed.: *The archival imagination: Essays in honour of hugh a.*

- Taylor, Association of Canadian Archivists, Ottawa, Canada.
- _____. 1997. "What is past is prologue: A history of archival ideas since 1898, and the future paradigm shift." *Archivaria*, 43: 17-63.
- _____, and Joan M. Schwartz. 2002. "Archives, records, and power: From (postmodern) theory to (archival) performance." *Archival Science*, 2: 171-185.
- Cox, Richard. 1989. "A documentation strategy case study: Western new york." *American Archivist*, 52: 192-200.
- Craig, Barbara. 2002. "Selected themes in the literature on memory and their pertinence to archives." *American Archivist*, 65: 276-289.
- Cronin, Blaise. 2008. "The sociological turn in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4: 465-475.
- Darnton, Robert. 1984. *The Great Cat Massacre and Other Episodes in French Cultural History*. Basic Books: New York.
- Davenport, Elisabeth. 2008. "Social informatics and sociotechnical research: A view from the UK."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4: 519-530.
- Day, Ronald. 2000. "The conduit metaphor and the nature and politics of information studi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51: 805-811.
- _____. 2001. *The Modern Invention of Information: Discourse, History, and Power*.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Carbondale.
- Derrida, Jaque. 1996. *Archives Fever: A Freudian Impression*. Chicago and London.
- Dollar, Charles. 1993.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in the information age." *Archivaria*, 36: 37-52.
- Duff, Wendy and Verne Harris. 2002. "Stories and names: Archival description as narrating records and constructing meanings." *Archival Science*, 2: 263-285.
- Duff, Wendy and Kent Haworth. 1990-1991. "The reclamation of archival description: The canadian perspective." *Archivaria*, 31: 26-35.
- Duranti, Luciana. 1995. "Reliability and authenticity: The concepts and their implications." *Archivaria*, 39: 5-10.
- Eastwood, Terry and Heather MacNeil, eds. 2010.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ABC-CLIO: Santa Barbara, CA.
- Funer, Jonathern. 2010. "Philosophy and information studies."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RIST)*, 44: 161-200.
- Gilliland, Anne and Eric Ketelaar. 2005. "Communities of memories: Pluralizing archival research and education agendas." *Archives and Manuscripts*, 33: 146-174.

- Gilliland, Anne, Sue McKemmish, Kelvin White, Yang Lu, and Andrew Lau. 2008. "Pluralizing the archival paradigm: Can archival education in pacific rim communities address the challenge?" *American Archivist*, 71: 87-117.
- Gilliland, Anne. 2011(in press). From Machine readable to digital records in *Telling Stories about Stories: The Archives in a Digital Age*.
- Ginzburg, Carlo. 1980. *The Cheese and the Worms: The Cosmos of a Sixteenth Century Miller*.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 Hackman, L. J. and J. Warnowblewett. 1987. "The documentation strategy process - a model and a case-study." *American Archivist*, 50: 12-47.
- Harman, D. and E. Voorhees. 2006. "Trec: Overview."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0: 113-55.
- Harris, Verne. 1997. "Claiming less, delivering more: A critique of positivist formulations on archives in south africa." *Archivaria*, 44: 132-141.
- _____. 2011. "Jacques derrida meets nelson mandela: Archival ethics at the end-game." *Archival Science*, 11: 113-124.
- _____. 2007. *Archives and Justice: A South African Perspectiv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Chicago, Ill..
- Haworth, Kent. 1993. "The voyage of rad: From the old world to the new." *Archivaria*, 35: 55-64.
- Hedstrom, Margaret. 1993. "The electronic records challenge." *History News*, 48: 5-8.
- Hensen, Steven. 1991. "Rad, mad, and APPM: The search for anglo-american standards for archival description." *Archives and Museum Informatics*, 5: 2-5.
- _____. 1997. "'NISTF II' and ead: The evolution of archival description." *The American Archivist*, 60: 284-296.
- Hinding, Andrea. 1993. "Inventing a concept of documentation."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80: 168-178.
- Ketelaar, Eric. 1997. "The difference best postponed?: Cultures and comparative archival science." *Archivaria*, 44: 142-148.
- _____. 1999. "Archivalization and archiving." *Archives and Manuscripts*, 27: 54-61.
- _____. 2002. "Archival temples, archival prisons: Modes of power and protection." *Archival Science*, 2: 221-238.
- McKemmish, Sue, and Frank Upward, eds. 1993. *Archival Documents: Providing Accountability Through Recordkeeping*. Melbourne.
- McLaughlin, Robert Bishop. 1989. "The evaluation of historical photographs: Considerations for visual resource curators and librarians in Museums and Archives." *Art Documentation Summer*,

55-60.

Srinivasan, Ramesh, and Katie Shilton. 2006.
“The south asian web: An emerging
community information system in the
south asian diaspora.” *Proceedings of
the Ninth Conference on Participatory*

*Design: Expanding Boundaries in
Design 1.*

Swift, Michael. 1982. “The canadian archival
science in the 1970s: Current develop-
ments and trends.” *Archivaria*, 15.